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표현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mitivism' in Textile Design

이혜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

## < 목 차 >

### I. 서 론

- I-1. 연구목적 및 의의
- I-2. 연구방법 및 범위

### II. 원시주의의 특성

- II-1. 어원적 개념
- II-2. 선사 미술과 미개 미술
- II-3. 원시주의의 발생 배경

### III.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원시주의

- III-1. 자연적 이미지
- III-2. 민속적 이미지

###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최근 물질문명에 의해 파생된 환경오염의 심각한 사회적 현상의 대안으로서 현대 텍스타일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원시주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원시주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원시주의를 태동시켰던 현대 예술에 나타난 '원시주의의 발생 및 개념'을 토대로하여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 제시한다. 이에 본고는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는 물론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의 활성화 및 체계적 정립에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를 둔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imitivism' which is constantly being applied on modern and contemporary textile design as a alternative expression of the serious environmental phenomena of materialism. Starting with the analyzation of the 'concept of

primitivism',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origin of primitivism' which was first recognized by the modern artists. Primitivism on modern textile design will be suggested through 'trend te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e a basic material source for the creative development in design as well as to be of help in development of theoretical the study on contemporary textile design.

### I. 서 론

서구 문화권에서 원시 미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전과 합리주의로 부터 파생된 정신적 허무감으로 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즉 르네상스 이후 재현(再現)의 추구를 바탕으로 쌓아온 전통의 한계를 느낀 예술가들은 이러한 미의식의 붕괴를 보완하기 위해 당대의 활발했던 고대문화 발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연스러운 접근에 의한 새로운 예술 개념을 창안했던 것이 이러한 예술 사상은 곧 20세기 텍스타일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의 원천이 되었다.

원시미술은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렇듯이 어느 특정한 시대나 삶의 제약을 초월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원시주의'의 개념은 원시미술에 내재된 조형의식처럼 순수하고 생생한 인상과 표현적 조형성에 매혹되었던 예술가들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물질 문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있는 현 시대적 상황 아래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원시주의를 바탕으로한 트렌드 컨셉트는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추세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대중의 관심의 증대에 따라 재차 부각되고있다.

본 연구는 예술의 한영역으로서 현대 예술의 양식의 발상이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먼저 순수 예술에서 논의 된 '원시주의' 용어의 개념 및 발생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같은 개념의 분석을 토대로 텍스타일 디자인에 반영된 원시주의 디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로서 현대 패션 잡지에 수록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사진을 사례로 제시하며 분석내용은 20세기 말, 텍스타일을 비롯한 패션 산업계에서 통용되고있는 및 패션 용어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 II. 원시주의의 개념

#### II-1 어원적 의미

원시주의(Primitivism)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프랑스의 라루스 사전에서 '원시적인 것의 모방'<sup>1</sup>으로 기술되어 있다. William Rubin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부족미술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조하는 경향을 원시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웹스터 사전에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또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고 문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원시적인 것에 해당하는 primitive(영)는 후기 신고전주의(post-Augustan)시기의 라틴어 primitivus로 부터 유래되었으며, 제일,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primus보다 그 의미를 강화시킨 것이다.<sup>2</sup> 일반 영어사전에는 '원시의, 사회발전의 초기, 소박한 구식의'라고 해석되어 있다. 아울러 '원시'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 시초를 의미하며 본디대로에서 진화 또는 발전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음을 말하며, 또한 '원시적'은 ① 초기와 관련되며 ② 무의식적 필요 욕구에 기원을 둔 정신활동, 행동과 관련되어 객관적, 논리적 유추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③ 고대적 양식의 특징을 갖는 단순한, 투박한 거친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한편, 「프리티비브」라는 말은 민예품처럼 기계에 의하지 않은 수공예품의 표현을 지적하거나<sup>3</sup> 어린이 작품 등에서 보여지는 기술의 미발달로 인한 치졸한 양식을 가리킨다. 또 서양미술사에서는 특히 통일적인 시각상을 이루지 못한 초기 르네상스의 전(前)단계를 의미하는 수도 있으며<sup>4</sup> 서양 문명권에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 대해 쓰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양미술에 적용되었을 때는 여러가지 경향의 미술을 동시에 가리키는 포괄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sup>5</sup>

'원시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원시주의는 역사를 최선의 원초상태에서 하강(下降)으로 보는 연대적 원시주의와 단순, 소박한 상황에의 복귀속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문화적 원시주의로 구별된다.<sup>6</sup>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더욱 여러가지 형태가 가능하지만, 주로 전자는 사적발전(史的發展)과 인위적인 것에 대립되고 후자는 법이나 이성적 정신활동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자연을 본다.

이와같이 원시주의는 용어상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미셸 벨(Michel Bell)은 「'원시주의'라는 용어는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의 특징을 지칭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야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sup>7</sup>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로버트 골드워터(Robert Goldwater)는 '현대미술에 나타난 원시주의'(Primitivism in Modern Art. p24)에서 '원시주의에 대한 일반적 묘사에 부합되는 예술가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정의가 원시주의에는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원시주의는 현대 미술상의 한 양상으로 원시적 성향 내지는 이와 같이 느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원시주의」 및 「원시적 성향」으로 혼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인 현대 텍스타일에 표현된 원시주의 디자인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원시주의의 개념 가운데 감성적 측면을 제외하고 가시적인 공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용어특성상 크게 ① 자연적 이미지 ② 민속적 이미지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sup>8</sup>

## II-2 선사 미술과 미개 미술

원시미술은 원시적 성격 내지 위치를 갖는 예술로서 소박하고 장식적 요소가 현저한 것이 특징이다. 원시미술(독, primitive kunst, 영 primitive art, 불 L'art primitif)은 선사시대의 원시민족이나 현존하는 미개한 자연민족의 미술을 말하며 미개미술이라고도 한다.<sup>9</sup>

<sup>1</sup> Nouveau Larousse Illustree, Vol.7

(Paris; Librairie Larousse, 1897 ~ 1904)

P.32 를 인용, op. cit. P.7 에서 재인용

<sup>2</sup>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2, The McMillan Company, London, 1968, p.389.

<sup>3</sup>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G&C. Merriam Co, London, 1971, P.486

<sup>4</sup> 竹内敏雄, 美學事典, 안영길외역, 미진사 1989, P.359

<sup>5</sup> 이일, 아프리카 미술의 정체, Africa 미술전 카다로그, 중앙일보사 문화사무국, 1987.

<sup>6</sup>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7 B22, P203

<sup>7</sup> Michell Bell, Primitivism, 金聖坤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1

<sup>8</sup> 김민자, 하지수는 현대원시주의 개념을 通時的, 共時的으로 분류하고 共時的을 다시 자연성과 토속성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

<sup>9</sup> 竹内敏雄 on Cit. P357

미술사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는 것은 태고의 원시사회에서 인간이 미술다운 미술을 제작한 것으로서 첫째, 인간이 수렵, 채집, 어업을 생업으로 삼았던 시기와 둘째, 농경목축에 종사했던 초기 생산 경제 시대를 지난 이후부터이다.

시원문화 회화의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 남부로부터 스페인 북부에 걸쳐 분포하는 동굴 벽화라하겠으며, 초기농경문화에 성립된 원시미술은 B.C. 6000년경부터 오리엔트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구대륙뿐만 아니라 신대륙까지 널리 분포 되었는데 오리엔트 미술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채문(彩文)토기이며 다음은 금은 공예품이다.

시원미술의 전체적 특징은 첫째, 종교 의식이나 주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둘째, 비사상적 인상주의적 수법의 작품이 대부분 차지하며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 셋째, 자손의 번영과 사냥의 대상이라는 짐승의 번식, 그리고 풍성한 사냥의 수확 등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신앙이 바탕이 된다는 점이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 1893~1968)는 "원시미술(Primitive Art)의 경우 선사인(先史人) 등이 창조한 최고(最古) 시대의 미술(prehistoric art)과 현존하는 미개인의 미술(modern savages Art)을 포함시켜 총칭한다."<sup>10</sup>고 서술한 바 있다. 원시미술과 미개미술 사이에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으나, 이들의 신앙을 보면 '원시인(primievalmen)은 주술적인데 비하여 현존 미개인(modern savage)은 그 의지가 초월적인 데 있다'.<sup>11</sup>

현존하는 미개민족의 미술로는 에스키모, 남부아메리칸 인디언,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국, 아시아 초원지대, 아프리카 각지 원주민의 미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개 지역은 소속 부족의 생활 습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애니미즘(animism)에 근거한 신상(神像), 조상상(祖上像), 의식용 가면 등이나 이 관념이 사물에 적용된 페티시즘(fetishism)으로부터 주술을 위해 다양한 우상, 부적을 만들고 있다.

20세기 이전의 프리미티브란 말은 14, 15세기 르네상스나 그 이전의 미술<sup>12</sup>인, 또는 페루, 인도 등의 미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여졌지만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미술에

적용되기는 20세기 들어와서였다고 본다.

## II - 3 원시주의의 발생 배경

현대 예술에 있어서 '원시주의'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순수예술로 부터 출발 되었으며 이러한 미적 사상은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연구를 위해 순수예술에서 논의된 원시주의를 고찰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원시주의는 19세기 후반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진 과학주의 사고와 물질주의<sup>13</sup>에 의한 정신적 황폐함으로 붕괴된 휴머니즘에 대신하는 새로운 정신적 기반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 당시 예술가들은 '문화적 활동의 확산'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오랜 규범으로 지속되어온 사실주의의 아카데미한 미학과 합리주의를 거부하게 되었으며<sup>14</sup> 이때 인스피레이션의 원초적 역할로서 현대예술이 방향을 틀린곳이 바로 '원시 미술'이었다. 이렇듯 원시주의는 자유로운 정신의 자율적인 표현을 추구했던 일군의 전위적(avant-garde)인 예술가들을 통해 표출되었으며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현대 예술을 통해 성립되었던 것이다.

당대의 아프리카 및 이국적인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과거와 현대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창안해 낸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이질적이고 야성적인 문화요소와 접촉하여 예술활동의 시원인 원시미술에 몰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 작가들에 내재하고 있었던 원시의 본래적인 형태 감각이 그들 자신의 속에서 새롭게 공명되고 부상된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 대해 프로이트는 『토템(Totem)과 타부(Taboo)』의 서문에서 '인간은 오늘날도, 최초의 원시인들의 심리적 구조를 여전히 간직한채 살아간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하는 본능을 뜻한다. 보링거(W. Worringer)는 추상충동의 본질에 대해 "원시에 나타났던 <공간 공포>라는 정신 작용은 현대 문명인이 과학 만능으로 인하여 인간정신세계의 황폐함의 경험 및 많은 불길한 체험과 일맥상통하며 또 추상적 예술 충동은 언제나 현실의 위기에서 발생하여 우리의

<sup>10</sup> Herbert Read, Art & Society, Schocken Book, N.Y.

1945, P.8

<sup>11</sup> 이영환, 「西洋美術史」, 博英社, 1971, P.3

<sup>12</sup> Ernest Hans Josef Gombrich, 崔旻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94, P.495

<sup>13</sup> Raymond Guidot, Histoire du Design, 김호영역, 도서출판 ars, 1995, P.P. 16 ~ 20

<sup>14</sup> 金洪泰, 다다의 초현실주의 미술에 나타난 원시적 성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88 P 1

주체와 내부의 현실사이에 단절이 생겼을 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sup>15</sup>

그들에게 향토적이고 이국적이었던 일본의 전통문화는 다양하게 반영되었는데, 일례로 헨리 도라(Henri Dora)는 그의 미술사 책에서, '마네(Manet)는 일본 목판화의 강한 명암 대비와 우아한 선묘사에서 많은 영향을 입었으며 드가(Degar)와 고갱(Gauguin) 작품의 인물포즈, 쇠라(Seurat) 작품속의 윤곽선, 그 밖에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구불구불한 곡선과 비대칭 형태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원시미술이 서구의 현대미술에 미치게 된 영향은 고갱과 야수파에 있어서의 『낭만적 원시주의』, 독일 표현주의의 『정감적(精感的) 원시주의』, 피카소(Picasso)를 포함한 『입체주의』, 『추상미술』에 있어서의 『지적(知的) 원시주의』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잠재적 원시주의』와 호안미로(Hoan Miro), 뒤비페 등에게서도 명확하게 보여준다.<sup>16</sup>

이렇듯 복잡한 세기말적 방황아래 고프리치가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즘(Primitism)을 남게 했다."고 주장하는바같이 현대 서구예술사에 있어서 원시주의의 효시는 누구보다도 고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갱은 부패한 문명사회에 대한 권태와 저항으로 자연스런 생활 양식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농색의 면으로 색가(色價)를 강조하고 굵은 윤곽선으로 형태를 단순화해서 장식적 표현을 하는데 특색을 가진 Port-Aven파 (Ecole de Port-Aven)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sup>17</sup> 고갱의 타이티(Tahiti)로의 출발은 현실의 모체인 과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환원을 의미하며 부패한 문명에 물들지 않은 건강하고 이질적이고 야성적인 인간성의 발견에 대한 열망의 소치이었다고 하겠다.

나비파(Grope des Nabis)들은 '회화는 그 본질의 2차원성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라 믿고 색채와 형태를 자유롭게 해방시킴으로써<sup>18</sup> 원시 미술의 형태와 색채로부터 생명력과 상징성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술사 영역에서 프리미티브란 원시 및 미개미술의 의미는 물론 루소(Rousseau)를 중심으로한 20세기초 소박파(素朴派)화가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미셸 벨(Michel Bell)은 고대 감성(感性)의 내면 지향적인 재창조가 아니고 다분히 도덕적 혹은 상징적인 '원시적 모티브들에 대한 의식적 사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의식적 원시주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sup>19</sup>

20세기 원시주의 예술운동에 있어서 가장 소박하고 첨단적인 그룹 운동을 일으킨 것은 마티스(Matisse)가 중심이었던 포비즘(Fauvism)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1906년에서 1907년 사이 마티스, 드랭(Derain),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ek) 등은 이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술에 관심을 가져 그들의 미술품인 가면, 인물상 등을 발견, 수집함으로써 부족미술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sup>21</sup> 색채와 구성

오브제(object)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 이유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단순성으로의 복귀를 추구했던 그들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식적인 회화로서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원색을 생명력있게 사용하였다. 야수파에 있어서 원시주의는 일반적으로 고갱이 알고있는 원시미술과는 상이점이 있다. 고갱은 '아즈텍(Aztec) 조각'과 남태평양의 석목(石木)글씨체 예술은 이해하고 인도 이집트를 잇고있는 다른 유럽이외의 토착 예술 전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나<sup>22</sup> 야수파는 아프리카 조각의 미적 가치에도 격찬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는 야수파와 독일 표현주의의 원시주의는 고갱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평도 있다.

피카소는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미적 방향의 함축성을 띠게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sup>23</sup> 아프리카 예술이 입체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품 세계에서 기초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가시적 형태의 배후에 있는 횡적 관념의 표상에 눈이 뜨이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와서는 부족 미술품에 나타난 가시적인 외형적 특징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원시주의의 정신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내면속에 존재해있는 무의식적 잠재력을 일깨워 그들의 꿈과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에켄대 다다의 『무(無)에의 정신』<sup>24</sup>, 더 나아가

<sup>15</sup> Wilhelm Worringer, 'abstraktion und Einfuhlong' Piperverlog, Munchen, P.33

<sup>16</sup> Robert Goldwater 가 그의 저서 Primitivism in Modern Art(1938)에서 분류함

<sup>17</sup> 이영환, op. cit., P.346

<sup>18</sup> 최승후, op. cit. P.34

<sup>19</sup> Michel Bell, op.cit., P.P.41 ~ 42

<sup>20</sup> 양희석, 예술철학(下), 자유문고, 1988, P.208

<sup>21</sup> William Rubin, 프리미티비즘은 왜 주목해야 하는가, 계간미술, 중앙일보사, 1985, P.40

<sup>22</sup> 최승후, op. cit., P.346

<sup>23</sup> Roland Penrose, Picasso, Phaidon, 1991, P.60

<sup>24</sup> Hans Richter DADA, 김채현역, 미지사, 1991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대안으로서 '꿈과 잠재의식'<sup>25</sup>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신화를 창조했던 것이다. 고프리치(Gombrich)는 미개의 부족미술은 '반고호의 표현성' 세잔느의 구성, 그리고 고갱의 단순성의 추구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원시인들의 2원적 세계관과 맥을 같이하며, 여기에서 원시 및 부족 미술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 III. 현대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원시주의

일찌기 16세기 유럽의 사상과 문학의 관심이었던 더럽혀지지 않은 인간. 지혜로우나 순진무구한 인간으로 특징지어지는 '고귀한 야만(Noble Savage)'의 개념<sup>26</sup>에 대한 전통은 특히 인간의 행복과 선행같은 유토피아적 견해가 문명이 지나는 제약성보다 우선한다고 믿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구체화되었으며 예술과 패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꽃과 식물을 입는다'고 표현될 정도로 여성복 직물의 대부분을 꽃과 자연물의 아플리케로 장식<sup>27</sup>했으며 20세기에 와서도 전원적이고 농가적인 스타일을 찾으려 했다. 19세기 동안 일본의 미술과 공예는 서방 세계에 큰 영향을 주어 이들이 장식은 물론 회화, 건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세기 후반 고조되었던 이국의 고대 건축의 유적 발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교양있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으로 되었으며 이집트식, 폼페이식 장식, 중국 등의 벽지 같은 '고대의 이미지'는 이른바 취향있는 사람들의 주택과 제품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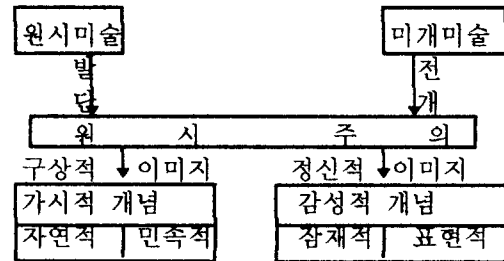
현대미술은 물론 디자인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원시성을 회복하기 위해 박차를가했는데 이는 조형의식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원시주의의 태동은 텍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례로

아르테코(Art Deco) 텍스타일 디자인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및 동양의 에스닉(ethnic) 모드의 취향이 도입되었다.<sup>29</sup>

이와같이 20세기 이후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원시주의 태동은 당시 개척되었던 식민지 박람회들 통해 직접 식민지 부족의 고기물로 부터 영감을 얻는<sup>30</sup> 한편 이 당시 '원시주의' 화가들이 직접 텍스타일 디자인에 참여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20세기 후기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원시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원시주의의 II장에서 논의된 개념을 <표 1>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접근, 적용하고자 한다.

< 표 1 >



본논문에서는 1차적으로 원시주의 개념가운데 잠재적 표현성을 배제하며, 가시적 개념에의한 자연성 및 민속성에 한정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 III-1 자연적 이미지

먼저 자연(nature)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찌기 그리스에서는 physis라 하였는데 이말은 피오마이(태어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며 본래 생성(生成)을 의미하였으며, 한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에 따르면 '그자체안에 운동의 원리를 가진것이다'<sup>31</sup>라고 하였다. nature(영)은 일반적으로 우주, 자연체, 문명생활 혹은 우주만물을 일컫는다.

여기서 자연은 ①사람의 형을 더하지 않는 천연그대로의 상태 ②물질적 표현으로서 우리의 경험대상의 전체 ③사람과 물질의 고유성을 말한다.

현대 텍스타일디자인에서 자연적 성향에 대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꾸밈없는 자연에 대한 관심<sup>32</sup>과 자연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P 61

<sup>25</sup>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 이대일역, 열화당, 1984, P.P.52 ~ 53

<sup>26</sup> 1967년 Driden의 '그라나다 정복'이란 연극에서부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ncyclopedia Britanica, Vol.8., 1985, P.748

<sup>27</sup> Mary Schoeser 外, English & American Textiles. T&H, 1989, P.P.31~63

<sup>28</sup> 정시화. 150년 산업디자인. 미지사. 1992 P 62

<sup>29</sup> Madeleine Ginsbury,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Studio Edition, London, 1991, P.84

<sup>30</sup> Mary Schoeser and K. Dejardin, French Textiles, Laurence King, 1991, P.152

<sup>31</sup> 동아백과사전, B24, P.898

<sup>32</sup> Marv Schoeser는 1995년 그의 저서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문명생활이 배제된 우주 만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체 즉 하늘, 땅, 식물, 동물 등과 관련되며 원시시대의 무기교성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자연적 이미지에 대한 텍스타일의 소재는 우선 가공되지 않은 천연소재인 모사, 견사, 면사 등 자연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프린팅 이미지의 원천은 미개화 지역인 저개발 국가의 지형적 이미지, 특히 열대지방이 대부분 차지한다.

우선 콜러니얼(colonial)풍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과거 유럽이 점령하였던 미개한 식민지 지역의 감각이나 이미지를 텍스타일로 표현한 것으로 유럽과 상이한 이미지를 지닌 식민지의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도입하는 것이다. 주로 열대의 식물이나 꽃, 열록말, 표범같은 동물(사진 1)과 조류, 정글분위기의 숲을 모티브로 사용한다. 콜러니얼 분위기는 자연 이미지의 거친 열대지방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착용했던 사파리(safari)를 도입함으로써 사파리룩의 특징인 퇴색한듯한 카키색을 바탕으로 한 거친 땅의 갈색, 모래와 흡사한 베이지색, 하늘색 등과의 조화와 채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실용적인 면섬유의 프린팅 기법이 많이 쓰여진다.(사진2)

또한 복잡한 도시문명에서 벗어나 모험보다는 보다 낙천적이고 한가하게 여행을 즐기는듯한 레조트(resort) 이미지의 '트로피컬 아일랜드 프린트(tropical island print)'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섬은 고갱이 거주했던 타이티(Thaiti), (사진3) 사모아 등의 남태평양제도, 하와이제도, 카리브해제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된다.

주로 열대지방의 활엽수의 식물, 다양하고 강한 꽃문양 등이 채용되며 색상이 선명하고 다채롭다는 점에서 콜로니얼 프린트와 구별된다. 유행주기에 따라 다시 하와이만 프린트 혹은 폴리네시아 프린트 등으로 세분화된다.

한편 문명이 발달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 도시의 인공적이고 화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동력을 하는 서민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컨트리(country) 이미지가 있다. 이는 전원이나 교외에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전원적 낭만주의'를 상징하는데 소박하고 투박한 캐주얼한 룩을 보이거나 간혹 야성적으로도 표출된다. 주로 거친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농민복 분위기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패스토럴룩(Pastoral look) 혹은 유럽 농부들이 착용했던 다소 거친 이미지를 보이는 페전트룩(Peasant look)이 있다.

90년대를 전후로 환경오염으로 지구촌 전반에 팽배했던 사회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연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이며 전 인류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디자인계에도 급속히 전파되어 리사이클(recycle)과 내츄럴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다. 이를 에콜로지풍(ecology)이라 하는데 자연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생태학'이란 뜻을 지닌다.<sup>33</sup>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동화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를 회복하려는 사고방식과 아울러 시원적 자연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아름답고 열정적인 자연 이미지를 추구했던 것에 반해 여기서 의미하는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끼, 바위, 버려진 땅, 진흙, 퇴색한 고건축 벽면(사진 4), 검고 다양한 피부색, 도시의 황폐화된 뒷골목의 정경, 나무껍질의 거친 질감, 거친 야생풀, 새둥지 등의 장식되지 않은 자연 그 자체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다. 즉 긴 세월의 의해 풍화된 자연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바랜색상, 즉 거친 회색이나 깊이감 있는 갈색 계열 등 낮은 채도의 색상이 주류를 이루며 수공예의 촉감적 질감만이 강조된 거친 질감의 이미지를 도입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유행을 하고 있다. 현재는 바다, 물(사진 5), 바닷속의 이미지 더 나아가 하늘, 우주공간, 은하계의 등 확대된 자연 자체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 III-2. 민속적 이미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민속은' 인간의 풍속, 민풍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민속학'은 인간전승의 원시적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 즉 민족등의 풍속, 습관, 전설, 신앙 같은 것을 수입하여 연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비슷한 용어는 '토속'으로 이는 '그 지방의 특수한 문화'를 말하며, '토속학'은 각민족에 전래되는 향토적 토속을 조사하는 학문을 뜻한다. 이는 영어로 '민족의, 인종의'를 의미하는 ethnic, customs, folk-way의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속예술은 민간에 전해져서 민간의 풍습, 신앙 등과 결부된 예술이라 하겠다.

민속적 이미지는 자연 그 자체의 이미지 보다 한 차원 발전한 의미의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것으로 기계적 이미지와 상반되는

International Textile Design 에서 90년대 텍스타일 주제 분석에서 The Natural World 및 Earth 를 포함시켰다. Waley

N.Y.

<sup>33</sup> 복식사전, 라사라 출판부, 1991, P.30

수공적인 이미지를 뜻한다.(사진 6)

일찌기 유럽 텍스타일 영역에서는 중근동으로 부터 극동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의 민속직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 19세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20세기초 혁신적 디자이너인 폴포아레(Paul Poiret)는 동양취미가 강한 텍스타일을 생산한바 있다.

한편 20세기 이후 고도의 문명화에 의한 교통수단의 발전은 개인적인 여행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동양과 서양의 확대된 교류에 의해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확산 되었고 아울러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고립되었던 다양한 소민족 국가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고유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조류에 부응하여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 이후에도 터어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이나 몽고풍을 전달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전파되어 대유행 하였다. 서구로부터 에스닉(ethnic) 풍이라는 용어가 강하게 부각되어 한국에도 전파되었는데 이 용어는 유럽을 제외한 종교 및 풍습이 다른 이국적인 문화권의 민족의상과 민족고유의 직물문양, 염색, 기법, 액세서리 등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중근동의 종교의상, 잉카의 기호문, 인도네시아의 바틱 그리고 인도의 사리둥이 포함된다. 또한 이와같은 이미지는 이국의 정서를 살리는 분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엑조틱(exotic)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세계 텍스타일 유행경향에서 발표했던 노스텔지(nostalgic)무드의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레트로(retro)의 경향에 힘입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의 하나로 포클로어 프린트(folklore print)가 있는데 포클로어는 '민속화' '민간전승'을 의미하며, 옛부터 민간에 전승된 고유의 풍습, 전설, 토기, 직물 등 다양한 문화 유산 속에 내재된 소박한 농어민풍의 전통적 분위기를 전달한다. 대체로 시골풍의 소박하고 친숙한 인상을 전달하지만 간혹 야성미가 풍부한 경우도 있다.

유럽지방을 대표하는 기독교문화권의 민족의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에스닉과 구분된다 하겠으나 60년대말 이후 히피의 영향으로 그 의미가 인도, 티베트(Tibet)등의 민족의상이 주목되면서 포클로어풍의 의미도 확대 전파되었다.

1976년 이브 생 로랑이 춘하 파리콜렉션에서 모로코풍 드레스를 발표했으며 겐조(Genzo)는 남아프리카 원주민의 인상을 채용, 밝은 태양밑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아프리카 이미지의 특징을 포착하고 있다. 아프리카(사진7)은

젤라바(djellabah), 강두라(gandoura), 카프탄(caftan)등의 민족의상이 자주 이용된다.<sup>34</sup> 케냐 스트라이프(Kenya stripe)는 아프리카 케냐지방의 민속의상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의 속칭으로서 주로 캐주얼한 드레스 문양으로 쓰여진다.

인도풍으로는 특히 인도 캐시미어(Cashmere) 지방의 특산품인 페이즐리 패턴이 유명한데 이미 19세기 유럽에서 크게 유행한바 있다. 이 문양은 캐시미어 산양의 털을 수방한 실로써 주로 값비싼 쇼(shawl)로 제작 되었다. 이것을 스코틀랜드(Scotland)의 페이즐리(Paisley)에서 모방해 만들어 유행시켰기 때문에 캐시미어 지방의 굵은 구슬형을 한 전통무늬를 페이즐리라고 일컫게 되었다. 또한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유래된 마드라스(madras)문양이 있다. 이 직물은 가볍고 아름다운 평직의 목면으로 보통은 줄무늬 문양이 많으나 체크(check)로 된것도 있다. 이와 형태는 비슷하나 다소 다른 트로피칼 타탄(tropical tartan)은 남국풍의 타탄 문양을 말하며 밝은 색조를 사용하여 남국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트로피컬 체크무늬라면 인디아 마드라스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전통문양의 용어인 타탄문양은 스코틀랜드 특징을 보여주는 보다 우아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한편 중동의 풍속을 모티브로한 아랍룩(Arab look) 으로 아라베스크(Arabesk)문양은 일찍이 전유럽에 전파된 바 있다.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 혹은 이슬람 교권의 건축물이나 염직제품 등에 있는 무늬를 의미하며 이슬람교가 구상적인 무늬를 그리거나 제작하는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무늬이다. 따라서 주로 곡선이나 기와 문양들을 기하학적 구도로 대칭, 방사, 반전, 반복 등의 수법을 통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90년대 이후 페르샤 용단 및 도기문양 등을 이용한 아라베스크풍이 광범위하게 제작되었다.

시누아즈리(Chinoiserie)풍은 중국의 색채, 소재, 패턴, 문양 및 액세서리 등을 모티브로 전개된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중국이나 극동풍의 문양, 풍물 등을 가구나 도자기, 직물의상등에 도입 유행되었던 이 모티브는 20세기말경 중국이 개방화 정책을 펼치면서 온세계에 다시 중국분위기의 디자인이 전파되고 있다.

웨스턴(Western) 스타일은(사진8) 주로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의 카우보이 등이 즐겨 착용한 스타일을 채용하고 있지만 미국 인디안 민속의복의 상징인 헤어밴드, 깃털장식, 비드장식의 벨트 및 술장식도 대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sup>34</sup>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P.125



미국 및 캐나다 인디안 민족의상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 이미지를 표현한(사진 9) 인디안(Indian)룩이 있는데 1976년 추동에 다나카겐조가에 의해 부각되었다.

그밖에 라틴풍으로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문양을 도입한 아즈텍프린트 혹은 고대페루의 잉카직물에서 보이는 선명한 기하학적 잉카프린트 문양, 혹은 인도네시아의 고유 텍스타일 염색기법인 이카트 및 바틱염 효과의 분위기 등이 널리 전파되었다.

또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있어서 '가시적 개념'에 의한 종합적 분석은 <표2>와 같다.

< 표 2 >

원 시 주의 (가시적)		
자연적 이미지	민속적 이미지	
무기교성	기교성	
지역적 확대	범위	지역적 특성
원시적 생태계	주체	원시적
자연정경 환경	영감	민속문화 수공예품
채도가 낮다	색채	채도가 높다
질감적이다		주로 색상대비
콜로니얼 트로피컬 에볼로지	표현 방법	오리에탈리즘 아프리카풍 인도풍 잉카프린트 웨스턴풍

#### IV 결 론

본 논문은 현대 서구 예술의 모태가 되었던 '원시주의'의 개념을 사전적, 예술적 개념을 통하여 정립 분석하고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표현된 '원시주의' 가시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① 자연적 이미지 ② 민속적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그동안 유행 경향으로 표현된 용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자연적 이미지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영감의 가치의 기준으로 도입하는것으로서 여기서 자연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민속적 이미지는 부족 미술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민예품처럼 기계에 의하지 않은 수공예품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천연 그자체의 이미지로부터 문화적 차원으로 발전된 원시적 문화의 이미지를 말한다.

서양 미술에서 원시주의는 급속한 문명의 발달로 물질주의에 의한 정신적 황폐함으로 붕괴된 휴머니즘의 대안으로 발생되었다. 원시주의의 효시는 고갱이라하겠는데 그후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를 통해 현대예술에 파급되었다.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원시주의의 컨셉포트는 원시주의 예술의 영향뿐 아니라 이국적인 향취를 간직하고 있는 미개지에 대한

여행이 증대됨에 따라 문명화 되지 않은 건강하고 야성적인 인간성이 바탕이 된 민속문화의 발견, 더 나아가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자연적 이미지는 첫째 가공하지 않은 자연섬유를 사용하는 한편, 프린팅 이미지의 원천은 미개화 지역의 자연 그 자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 열대지방 정경 및 생태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콜러니얼 프린트, 트리피컬 아일랜드 프린트, 컨트리 이미지, 패전트룩, 패스토럴룩 등이나 리사이클링 소재 이용 및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민속적 이미지는 주로 유럽을 제외한 지역의 민속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공예품의 기법 및 색상을 도입 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리엔탈리즘을 비롯하여 노스웨스트 무드에 의한 포클로어 프린트, 에스닉풍, 이그조틱풍, 아프리카풍, 인도풍, 아랍풍, 웨스턴풍, 라틴풍 등이 있다. 색상의 표현은 민속풍에서 보여주는 색상 대비에 의한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원시주의' 주제는 세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지속될 전망이며 본 논문이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진보적 디자인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Michel Bell, Primitivism, 김성곤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 Ernst Hans Josef Gombrich, 최민 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94
- °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 ° 정시화, 150년 산업디자인, 미진사, 1992
- ° Penny Sparke 외, Design Source Book, 미진사 편집부 역, 1990
- ° 양희석, 예술철학(하), 자유문고, 1988
- °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 ° Mary Schoeser 외, English & American Textiles, T&H, 1989
- ° Madeleine Ginsbury,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Studio Edition, London, 1991
- ° Mary Schoeser 외 French Textiles, Laurence King, 1991
- ° Melanie Paine, The Textile Art, Simon & Schuster, N.Y.1990
- ° Mary Schoeser, International Textile Design, John Wiley & Sons, N.Y., 1995
- ° 김홍태, 다다와 초현실주의 미술에 나타난 원시적 성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논, 1988



(사진 1)  
Comme Des Garçons  
동물 이미지를 응용한  
아프리카풍



열대지방의  
콜러니얼풍



(사진 3)  
고갱 작품을 채용한  
트로피칼풍



(사진 4)  
파괴된 고건축의  
이미지를 응용한  
에콜로지풍



(사진 5)  
바다, 자갈을  
표현한  
에콜로지풍



수공품의 이미지



(사진 7)  
기하학적인  
아프리카풍



(사진 8)  
인디안 스타일  
이용한 체크리본



(사진 9)  
인디안풍의 문양